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2, No.4 (July 2002) pp.51~63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 윤 경 · 이 경 희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in the 20th Century Men's Fashion

Yoon-Kyoung Kim · Kyoung-Hee Le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2. 2. 23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ymbolic meaning in 20th century men's fashion through analyzing of social environment factors. After recent industrial society, men had expressed their privilege, prestige and social power according to fashion. Men's fashion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as emerged as the images of robustness and strictness with perfect cutting, thick and stick fabric and dark color that were influenced by british style. It was symbolic meaning of authority orientation which showed the superiorities of social and sex classes. It was beginning of change according to social phenomena. The world war I, II and change of lifestyle by material affluence in automobile industry mollified rules of men's fashion. It showed a serenity of living. Also, the growth of young culture changed trickle-down of men's fashion into bottom-up and showed opposition for elite culture in fashion. These change particularly became acceleration by individualism, open-society and the collapse of sex class. Men expressed sexual and inherent desire for fashion that was no longer concerned with symbolizing of authority but rather with pleasure pursuit.

Key Words : Symbolic Meaning(상징적 의미), Authority(권위), Serenity(여유), Opposition(저항),
Pleasure(쾌락)

I. 서 론

의복은 시대의 반영물¹⁾이며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개인이 착용한 의복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는 의복이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의복의 사회적 기능 중의 하나는 성별 표현을 통한 성 역할 규정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구별되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왔다. 산업사회가 만든 남성중심사회는 남성들에게 남자다움과 강인한 가부장적 모습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의복을 통해 견고하고 강건한 외형의 움직임 없는 스타일로 고정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남성이 패션에 대한 수용에 있어 보수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나 산업社会의 발전을 통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는 그들의 경제적 위치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을 변화시켜 산업사회 초기와는 다른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성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복에 표현된 성적이미지²⁾,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³⁾, 남성성⁴⁾에 대한 연구와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앤드로지너스⁵⁾, 바이섹슈얼리티⁶⁾ 그리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⁷⁾과 관련해 남성복의 양성화 현상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성 개념, 성적 이미지, 성 정체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남성복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사회적 환경의 변화요인과 그 속에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社会의 초기단계에 현대적인 원형이 정립된 남성복이 오늘날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요인의 분석을 통해 남성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미래의 남성복의 변화양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20세기 남성패션에 관련된 문헌자

료를 바탕으로 시대적 고찰과 패션 사진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I. 남성패션의 변화요인

우리는 의복을 통해 착용자의 성별, 나이, 직업, 사회계층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생각, 신념, 가치, 태도 및 관심 등에 영향을 받는다⁸⁾. 산업화가 만든 남성중심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성 차를 뚜렷이 하여 성 차에 의해 주어진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였으며⁹⁾ 이는 의복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20세기 초 남성패션은 남성중심사회아래 사회적 성적 계급에 기초를 두고 남자다운 강인한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산업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사회적 환경요인은 이러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패션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20세기의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남성패션의 변화요인을 6가지로 살펴보았다. 이를 시대적 순서에 의해 열거하였으며 이들 요인간에는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 제 1, 2차 세계대전

의복의 유행 및 변화는 그 시대의 경제, 정치, 문화 및 예술 등에 영향을 받거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나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복식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세기 초기의 남성패션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이후의 장식이 없는 간소하고 단순한 실질적인 영국 모드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몇 개의 작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영국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다¹⁰⁾. 제국주의가 성행한 19세기 말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벨기에는 자국의 식민지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그 즈음해 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다. 제 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에게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남성패션을 이끌어 왔던 영국도 전쟁의 타격으로 휴전 직후 극심한 경제

난에 직면하였다. 이어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은 독일에 의한 프랑스의 함락, 영국의 경제적 약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¹¹⁾.

전쟁을 통해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군수품 제조, 원료와 식량 생산에 주력한 미국은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2차 대전 중에도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국, 프랑스, 소련의 병력에 필요한 보급품을 대여 주어 불경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전쟁이 끝난 후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남성패션계에도 그 영향력이 커졌다¹²⁾. 전후의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미국인들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프랑스를 여행하며 그 곳에서 미국보다 훨씬 풍요로운 패션 문화를 경험하고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이들은 영국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그들의 방식대로 계승하여 발전시켰으며 이는 넉넉하고 움직임이 편안한 기능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전쟁은 또 하나, 여성해방운동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났으며 이는 여성복식에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늘어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전쟁 후 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사회적 권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늘어갔다¹³⁾. 반면 전쟁에 직접 참전한 남성은 전쟁을 통해 얻은 물질적, 정신적 상실감이 커졌으며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사회에는 그들의 지위와 권력, 부를 유지시켜 주었던 사회가 변화고 있음을 체험해야 했다. 이는 남성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한편으로 그들을 구속해왔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2.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산업사회가 만든 물질적 풍요로움과 과학문명의 발달은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테니스, 승마, 골프, 폴로 등의 스포츠와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생활전반의 향상된 라이프 스타일은 남성패션을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스타일

로 바꾸었다.

스포츠는 운동선수나 구경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인습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옷을 입는 경향을 만들었으며 이는 남성들에게 의복을 통해 표현되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심리적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패션의 성들 간의 선언적인 대립과 외양의 대립에 의지해왔다면 스포츠와 캐주얼웨어의 보편화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라는 이러한 세속적인 구분법을 바꾸어버렸다. 남성 패션은 독창성의 당위라는 요구와 유희를 특징으로 하는 진정한 패션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¹⁴⁾. 엄격하고 딱딱함, 어둡거나 다소 가라앉은 색을 벗고 밝고 발랄한 색으로 바뀌어 갔다. 속옷, 셔츠, 재킷, 테니스복 모두 색을 다채롭게 조합하면서 색상의 자유로운 유희를 즐겼다. 또한 간편하고 입기 쉬운 폴오버 니트웨어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느낌의 트위드는 딱딱한 수트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로움을 안겨주었다¹⁵⁾. 또한 티셔츠나 스웨터 셔츠에 재미있고 코믹한 글자와 그림들이 나타남으로서 남성패션에도 심각하지 않은 유머러스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캐주얼한 옷에 대한 선호는 개인관계, 성관계, 스포츠나 직장에서 일고 있는 자율성에 대한 요구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풍성하고 협령하고 자유로운 옷에 대한 욕망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남녀가 같은 옷을 입는 유니섹스 롤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성간의 분리를 통한 의복 스타일에서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남성패션이 부분적이긴 해도 패션의 완화된 논리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스포츠와 캐주얼웨어의 보편화는 개인의 자유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특히 남성에게 있어 기준에 부여되어 왔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좀 더 자유로와 지게끔 하였다.

3. 청년문화의 성장

전쟁이후 태어난 베이비 봄 세대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청년문화를 형성하였다. 이 새로운 문화는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비 순응성을 선언하였고 개인적인 표현, 여유있는 휴식, 유머, 그리고 자발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하였다. 패션은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식적인 규범에 대해 해방된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젊은 표정에 젊은 모습의 매력을 포착함으로써 발랄하고 해방된 자기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였으며 이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되었다¹⁶⁾. 청년문화의 성장으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 패션 스타일인 히피, 평크 패션은 지배문화, 사상, 가치관, 상징성 행위 등 기존의 규범과 다른 하위 문화의 성격을 가지면서 집단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켰다¹⁷⁾.

이러한 경향은 현대패션을 특징짓는 관료체제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는 성이 모호한 네오맨더이즘¹⁸⁾의 특징을 띠게 되었고 일상적인 것과의 급격한 단절을 제시하였으며 불쾌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기 위해 도발성과 기이함을 즐겼다¹⁹⁾.

이러한 젊음의 코드는 양성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코드 아래에서 남성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패션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가지면서 한때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나르시시즘²⁰⁾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청년문화의 성장은 남녀 성 개념에 대한 변화를 만들었으며 패션이 더 이상 권력이나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해체시키고 남녀 모두를 위한 공동체 사회로 재구성하려 하였다. 또한 남성이나 여성의 상반된 가능성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한 인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다²¹⁾.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의상을 입고 나타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의 외모와 성 차를 통한 그들의 패션구조가 최상의 미적 기호와 개인적인 우월성의 표시가 아니며 사회계급과 무관한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도전의 형태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상징이 되었다.

4. 개인주의

유행을 이끄는 옷들은 언제나 계급의 기호였고 상징이었다. 무엇보다도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지위상징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개인주의이다. 산업사회가 가져다 준 물질문명의 혜택은 기본적 욕구에 대한 충족과 규격화가 만든 익명성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찾고 표현함으로써 거기에 만족하는 개인주의 정신에 있다.²²⁾

절대적으로 자신이 되는 권리, 삶을 최대한 누리는 권리라는 개인주의 이념의 최종적 표현으로 이러한 변화는 소비의 혁명과 관련된 생활 양식의 변모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소비에 있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논리와 연결되어 사회적 통제라는 장애물을 더욱 밀어내게 되며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역할과 획일적이고 상투적인 규범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성적·가족적 풍속의 해방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²³⁾.

자기 자신에 대한 즐거움, 편안함, 그리고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의는 산업사회의 발달이 가져다 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청년문화의 성장배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정에서의 권위적인 아버지나 사회에서의 존경받는 인물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으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팽배해졌다.

이제 남성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미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오늘날 개인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나타내는 자신만의 스타일이며 남성중심사회가 만들어낸 책임과 이성적 사고의 엄격한 순응주의 코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계급 간, 성간의 투쟁이 아니라 서로의 코드를 서로 공유하며 힘의 균등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5. 열린사회

1980년대의 패션은 이전 시대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유행

의 다각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계속 이어졌다. 유행의 다각화 즉 다양화 현상은 여러 스타일이 한 사회 안에서 동시에 유행하는 것²⁴⁾으로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금의 트랜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의 기호도 다양한 의미로 기술 해석 평가될 수 있다²⁵⁾. 패션은 이제 추한 것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코드들이 기준의 우아함의 여러 모습들과는 대치되어 나타났다. 20세기 후반의 대중문화는 반복해서 옷을 해체하고 전개시켰으며 이는 패션에 있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분석적 창조의 과정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패션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었다²⁶⁾.

정지되고 단한 사고의 장이 아닌 끊임없는 찰나적 변화를 시도하는 열린패션²⁷⁾은 균일하고 규율적인 중앙통제식 계획이 끝나고 혁신과 확산, 창조적인 아방가르드²⁸⁾와 패션에서의 격식과 격차가 무너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열린사회가 만든 열린 패션은 이전의 패션 지도자들이 이끌어오거나 사회적 통제와 책임 속에 움직여 왔던 남성패션을 자기 나름의 리듬과 선택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산업화의 대량생산이 만들어낸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사회는 남성들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열리게 하여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남성패션에 계급간 특히 성간의 차이를 파괴시키는 패션의 민주화를 가져 온 것이다. 열린사회의 남성들은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에서의 정보와 절대적인 가치체계의 부재 속에 더 이상의 금기사항이 없는 열린패션을 통해 다양하고 서로 완전히다른 제각각의 스타일이 대립되는 시대를 만들었다.

6. 성 계급의 붕괴

20세기 중반이후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반발로 패션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 개념과 그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가치체계를 변화시켰다.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페미니즘²⁹⁾은 80년대 들어 탈 권력에의 의지, 탈 중심화 현상으로서의

이성과 감성이라는 양극화의 대립상태에서 융합, 해체, 그리고 초월성이란 영원성의 반 미학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³⁰⁾과 결합하면서 서구문화를 주도해온 남성중심의 이성주의 담론의 해체를 추구³¹⁾하였으며 이것의 한 현상으로 앤드로지너스 룩이 나타났다.

복식에서 남녀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착용함으로서 생겨난 유니セックス³²⁾의 80년대 모습으로 보는 앤드로지너스 룩³³⁾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의 복식을 공유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방식으로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감성과 미에 대한 악의 없는 모험을 시도한 것이다³⁴⁾. 포스트모던 패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여성만의 해방운동으로부터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해 나갔다. 이 개혁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인간적 수준으로 존중한다는 가치 중립적 입장의 수립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나³⁵⁾ 남성 또한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규제에 대한 억압된 감성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게 되었다.

기존의 남성패션은 이성적이고 실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외양의 영역에서 남성들이 의복에 있어 여성적인 코드들을 채택하는 것은 남성적인 정체성의 본질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체계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의복에서의 남성적인 코드, 여성적인 코드를 구분 짓고 성에 따라 나누어 사용되어야만 하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남성패션에서의 권위적인 이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성 계급의 붕괴는 외복은 오로지 자신의 표현수단이며 남성 또한 자신을 가꾸고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성적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고 체계를 가지게 하였다. 의복을 통해 좀 더 자유로와 지고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감도 줄어들고 있다.

이상의 20세기 남성패션의 변화요인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20세기 남성패션의 변화요인

변화요인	현상	사회적 현상
제 1,2차 세계대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여성해방운동) 미국의 부상(British Style 영향 약화) 현실에 대한 회의(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 스포츠, 레저 생활 확대(스포츠, 캐주얼웨어 발달) 젊고 활동적인 패션(American Style 영향)	
청년문화의 성장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네오댄디즘(극도의 한계상황, 성 차의 소멸) 안티패션(히피, 평크패션 등)	
개인주의	지위상징의 축소(권위적 이미지 탈피) 자기중심적 사고(남성중심 사회의 순응적 코드 거부) 개성표현(개인행복추구)	
열린사회	다양한 패션스타일 등장 패션의 민주화(해체주의, 다원주의) 열린사고, 열린패션(중앙통제식 규율 타파)	
성 계급의 붕괴	특권의식붕괴(사회적, 성적 우월감 붕괴) 동등한 인격체(성의 경계 해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III.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산업사회에서의 남성들은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성들의 수공업, 기술적 능력은 공적인 공간과 권력의 장 특히 생산에 대한 장을 지배하게 하였고 여성의 노동력은 상징적 자산의 경제논리가 존속되는 사적인 공간인 가정이나 사회봉사와 같은 상징적 생산세계에 할애되었다³⁶⁾. 남성중심 사회의 남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위엄있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복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 성적 계급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왔다.

20세기 초 남성패션은 19세기 산업혁명이후 경제적, 정치적 힘에서 우위에 있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산업화의 중심에 있던 영국은 가족의 가치와 개인의 품위, 자존심, 적절한 여가문화가 중시되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에도 상당히 확산되어 계급과 지위를 나타내는 외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³⁷⁾.

영국 Edward VII의 통치기간인 20세기 초에는

그의 패션이 남성복의 전형으로 자리잡았으며 검정색 프락 코트에 검정색 실크 탑 해트는 사회적 모임에서 남성복의 기본복장이 되었다³⁸⁾. <그림 1>³⁹⁾은 공식 행사나 모임에 검정색 프락코트와 실크 탑 해트를 쓰고 있는 20세기 초 남성의 전형적인 의복형태로 성인남성과 같은 의복을 입고 있는 소년들은 의복을 통해 어릴 적부터 여성과 다른 성역할 및 사적 정체성을 배우게 된다.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남성패션은 권위적이며 사회적 성적 계급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 속에는 성적욕구에 대한 표현은 억제되고 권위를 지향하는 외관상의 근엄함에 치중하고 있어 딱딱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의복은 기하학적인 형태 곧 원통모양을 기본 형태로 여기에 결핍된 아름다움은 극도의 철두철미함을 추구함으로써 보완하려고 하였다. 의복은 패락을 추구하기 보다 옷을 입고 있는 남성에게 그가 맡은 기능으로 환원시켰다. 개성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의복을 통해서 개성을 보여주려는 욕구는 시민 사회

의 남자들에게 유아시절부터 추방되었다⁴⁰⁾. 세부 디테일이 전체 구조 속에 통합되고 장식성이 없고 단순하며 재질이나 재단에 있어 고급스러움과 완벽함이 보이게 하여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Y형의 입체형, 단순하고 세련된 무채색이나 중간에서 어두운 채도의 색, 무겁고 양감이 있고 딱딱한 적물 그리고 짧은 머리와 수염은 남성패션의 코드로 자리잡았다⁴¹⁾. 즉 의복을 통해 합리적 인격의 소유자로 정직하고 강인한 모습의 외모를 부여하였다⁴²⁾. 고급스러움과 견고한 외형을 가진 남성의복은 남성중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남성패션의 근대화는 항상 완벽한 것이었으며 이는 힘과 공격성 등 남성적 이미지가 강조된 것으로 남성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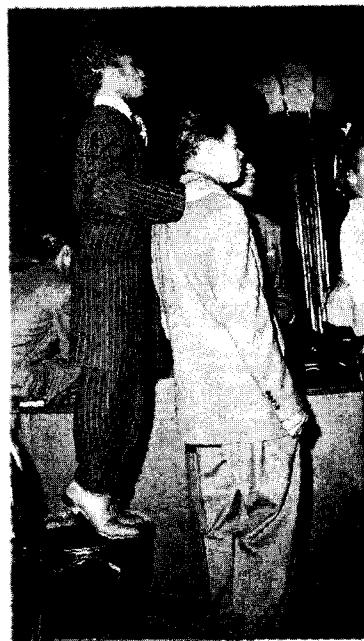
<그림 1> 권위적인 모습의 남성패션³⁹⁾

20세기 들어서 2차례의 세계전쟁은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의 서열을 바꾸었으며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쟁 참전을 통해 생기는 사회적 공백을 여성들이 메우기 시작하면서 여성지위향상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사회 활동에 적합한 패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비단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20세기 들어 남성복은 빅토리아 시대의 규범이 많이 약화되었다.⁴³⁾

19세기 중반이후 남성패션의 중심이었던 영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에 그 자리를 넘겨주었으며 미국적 스타일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은

의복의 착용방법, 디자인, 봉제 등의 격식 완화와 스타일 및 색상, 소재 등의 다양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2>⁴⁴⁾는 미국에서 입기 시작하여 영국, 프랑스에까지 영향을 준 신사복 스타일의 Zoot-suit로 어깨패드가 높으며 넓은 어깨에 드레이프 진 긴 더블 자켓과 페그 톱(peg top) 바지로 대담한 출무복과 보 타이, 뾰족한 구두, 열쇠 등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 기존 정장에 대한 개념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다.

<그림 2> 캐주얼한 남성패션⁴⁴⁾

패션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사회의 발전이 가져다 주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테니스, 골프와 같은 스포츠는 물론, 여행과 같은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남성복에도 때와 장소에 맞는 간편한 스타일의 재킷과 같은 캐주얼한 의상이 선보이게 되어 남성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격식을 갖춘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짧고 아방가르드한 모습으로 변하였으며 새롭고 현대적 이미지를 갖추고자 하였다⁴⁵⁾.

<그림 3>⁴⁶⁾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흰색 면 바

지와 블레이저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이전의 남성 복에 비해 훨씬 가벼워지고 격식이 완화된 편안한 모습으로 생활 속에서의 여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편안함과 여유로운 모습의 남성패션⁴⁶⁾

20세기 중반이후로 청년문화의 성장과 함께 조직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들이 가속화되면서 엘리트의 문화로 대변되어 오던 남성패션이 상향전파로 바뀌었다.

이는 남성들의 문화 내 가치관의 변화이며 상호 관계 속에서의 의미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엄격함은 느긋함으로 생물학적 기체로서의 육체는 섹시한 육체로, 똑바른 옷차림은 가볍게 대충 걸치거나 꼭 끼는 차림으로 전통적인 것에 대해 새롭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구성되었다⁴⁷⁾. <그림 4>⁴⁸⁾는 T-셔츠와 가죽 점퍼, 꼭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이유없는 반항의 한 장면으로 영화에서의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패션은 곧 젊은이들에게 퍼져 유행이 되었으며 이는 상류계층, 기성세대, 전통적 규범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다.

성적 우월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온 남성패션은 남자다움의 무거운 짐에서 탈출하기 위해 유니섹스 록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있어 유니섹스를 만들어낸 힘의 요인에는 엄격한 남자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요소가 있으며 기성세대에 대한 사고와 체제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통한 개



<그림 4> 젊고 활동적인 남성패션⁴⁹⁾

인주의적 자기 표현에 있다. 형식적인 규범과 판에 박힌 복장에 대한 거부는 진, T-셔츠, 캐주얼 재킷, 운동화 등 남녀가 비슷한 의상을 즐겨 입는데서 시작되어 의복을 통해 ‘여성미’와 ‘남성미’를 초월하여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현상으로서 성 개념을 탈피한 성의 혁명이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 변화가 유니섹스 록의 주된 형성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 생활에서 성별의 차이가 더 이상 특정적인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남성패션의 양성화 경향은 여성에 대해 힘의 상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⁵⁰⁾. 1950년대 이후 청소년 하위 문화집단인 테디 보이즈, 모즈, 히피, 평크족들의 양성적인 복식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⁵⁰⁾는 동일한 의상과 신발, 악세사리를 착용하고 있는 평크족의 모습으로 그들의 패션에 대한 취향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디자이너들은 남성복을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벼운 소재와 주름진 셔츠, 부리가

넓은 바지, 캐주얼 의상과 세파레이츠 그리고 보석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 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룩을 제시하였다⁵¹⁾. 양성적인 이미지의 유니섹스 의상은 1980년대 들어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변화되어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각각의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멋을 자유로운 감성으로 교차시켜 전체성을 추구하였다.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을 초월하여 서로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면서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⁵²⁾ 그들의 개방된 패션에 대한 감성은 다양한 스타일만큼이나 자유로웠다.

<그림 5> 양성화 경향의 남성패션⁵⁰⁾<그림 6> Feminine한 남성패션⁵³⁾

향을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성패션의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말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기존의 자신의 안정된 정체성에 대한 분열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들을 구속하던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며 더욱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림 7>⁵⁴⁾은 기존의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남성패션의 미의식에서 벗어나 추한 것까지도 패션의 일부로 흡수하여 표현하고 있다. 사회계층, 직업, 수입, 종교 등과 관련된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전통적인 형태는 빠른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점 더 빨리 사라지게 되었으며 20세기 말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위기는 패션 산업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별화 된 남성 마켓형성을 부추겼다⁵⁵⁾. <그림 8>⁵⁶⁾은 새롭고 개성적인 패션을 보여주고 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독특한 패션취향은 때론 의복의 편안함이나 기능적인 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킨다. 고전적 남성의 의무를 탈피한 자유롭고 감성적인 표현의 남성패션은 과거의 모습을 감추는 역사적인 단절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구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이라는

<그림 6>⁵³⁾은 여러 층의 러플과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의 남성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해체시키고 있다. 사회 참여적인 동기로 시작되었던 여성의 경우와 반대로 유희적이고 장식적인 일면을 수용해 왔던 남성패션은 산업사회 이후 남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의무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복합적인 감성을 대변하고 있다. 젊고 감성적인 자기 표현은 이전의 남성복이 표현해 왔던 권위지향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들의 패션취

통합된 이미지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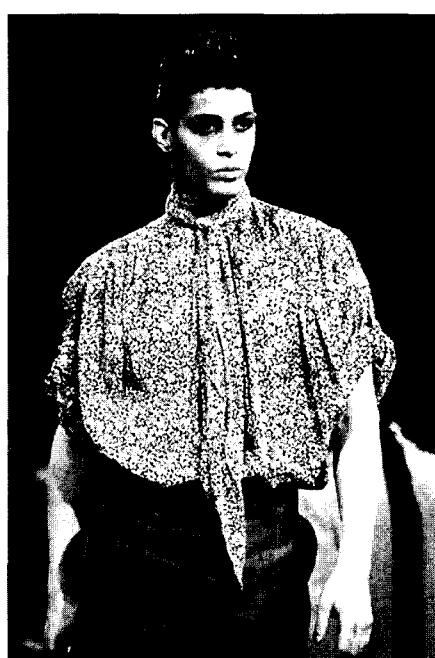
<그림 7> 신선한 발상의 남성패션⁵⁴⁾

1990년대 들어와 Jean Paul Gaultier 등 여러 디자이너들은 60, 70년대 유니섹스 패션의 주제를 갖고 좀 더 부드럽고 여성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셔츠와 바지에서 훌리내리는 선을 이용하면서 심지어 스커트를 남성패션에 제안하였다⁵⁷⁾. 여성에게 사용되던 소재와 색상이 남성복에 사용되어 남성의 강함과 여성의 부드러움을 더하여 패션에서의 잰더리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⁵⁸⁾는 부드러운 소재의 셔츠 블라우스를 통해 견고하고 딱딱한 남성복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있다. 같은 의복을 공유하되 다른 식으로 입음으로써 자유로운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⁵⁹⁾. 그 안에는 사회적 계급에 대한 의식과 성의 경계가 무너졌으며 개인의 미적 요구에 대한 자기 표현만이 존재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라는 상황은 이성, 공격성, 힘, 권력 등으로 대표되는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이상형을 나타낸다. 남성패션은 그들의 삶에 대한 표현이며 더 이상 사회의 엘리트나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림 8> 개성적 표현의 남성패션⁵⁶⁾



<그림 9> 쾌락추구의 남성패션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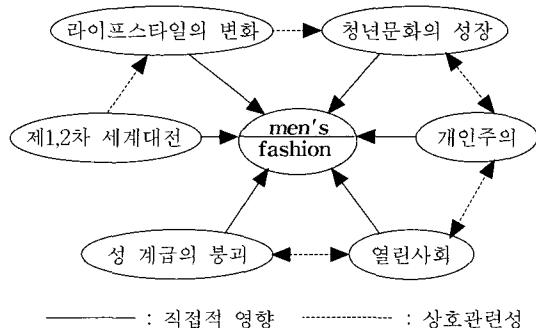
그들의 패션은 사회, 경제, 정치는 물론 그들이 사회에서 선택하는 역할과 대중 매체나 인기 있는 문화에 끊임없는 영향을 받으며 미래의 패션도 그려할 것이다⁶⁰⁾.

이제는 패션에서 권력이나 명예, 사회적 성적 계급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한 권위지향의 의미보다는 자아에 대한 본질적 폐락을 위해 다양한 패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편견을 벗어버리는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지향의 견고하고 획일적인 스타일은 오늘날의 다양한 가치관과 성적인 욕구, 인간으로의 내적 표현 욕구를 표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즐거움을 통한 폐락추구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와 그에 따른 의복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으며 변화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표 2> 20세기 남성패션의 변화양상

시기	20세기 초			→	20세기 말		
상징적 의미	권위지향		생활에서의 여유	↑	엘리트문화에 대한 저항	→	폐락추구
변화요인	제1,2차 세계대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	청소년문화의 성장	↑	개인주의 열린사회 성 계급의 붕괴
패션특성	사회적, 성적 계급표시 권위적, 남성다움 강조 극도의 완벽함 추구 견고한 외형 두껍고 무거운 소재 어둡고 가라앉은 색상	스포츠, 캐주얼 웨어(티셔츠, 캐주얼 자켓, 니트 웨어) 편안함, 느긋함, 여유로움 표현	젊은 아방가르드 스타일 (히피, 평크 패션 등) feminine 현상 (양성화 경향)	↑	사회적, 성적 계급붕괴 자유로운 감성표현 다양한 스타일 얇고 가벼운 소재 밝은 색상 다양한 아이템 등장	↑	
내적의미	권력, 명예, 지위의 특권 남성중심사회 성적욕구은폐 보수적 사고				권위주의 탈피 인간지향사회 성적, 내재적 욕구표출 개방적 사고	→	
패션 이미지	hard (무거운, 어두운 엄격한, 이성적, 획일적인)				soft (가벼운, 밝은 자유로운, 감성적, 다양한)	→	



<그림 10> 20세기 남성패션의 변화요인

VI. 결 론

본 연구는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남성패션의 상징적 의미변화를 사회적 환경요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패션은 언어 이외에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의 하나이며 남성은 이를 통해 근대산업사회가 만들어낸 남성중심사회에서 그들의 지위와 권력, 사회적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권위지향적 의복은 남성들에게 사회적, 성적 계급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20세기 초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에 있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완벽한 재단과 무겁고 딱딱한 소재,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여 권위적이고 엄격한 남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제 1,2차 세계대전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늘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여성해방운동으로 까지 확대되어 남성중심사회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영향과 산업화의 풍족함이 주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스포츠와 레저생활을 보편화시키면서 남성패션의 정형화된 패션스타일을 가볍고 젊게 바꾸기 시작하였다. 남성패션의 엄격한 규율의 완화와 함께 캐주얼웨어의 발달은 의복을 통해 생활 속의 여유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20세기 중반 청년문화의 성장은 남성패션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기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과 사회적 제도에 대한 비준응적 코드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를 패션을 통해 분출하였다. 남성은 그들을 지배해오던 엘리트 문화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패션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양성화 경향이 보였으며 유니섹스 룩, 앤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 룩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역할과 획일적인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삶을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개인주의와 열린사회를 통해 접하게 되는 열린패션은 남성패션을 더욱 더 다양화시키면서 기발한 발상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내었

고 성 계급의 봉괴는 남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미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패션에서 나타났다. 남성패션은 가벼워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너그러워졌다. 남성중심사회에서의 권위 지향적 의복은 여러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으며 오늘날 남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들의 성적, 내재적 욕구를 표출하는 패션지향의 의미로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1) Marilyn J. Korn and Lois M. Gurel. 이화연 외 역. 의복 : 제2의 피부. 까치. 1988. p.142
- 2) 이민선.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19세기 중반 이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3, No.6, 1999. pp.776-787
- 3) 송명진 · 채금석.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Vol.25, No.2, 2001. p.327-338
- 4) 이민선. 가부장제도, 패미니즘, 포스트모던 패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한국의류학회지. Vol.25, No.2, 2001. pp.470-481
- 5) 채수진 · 김혜연. 패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호. 1999. pp.203-224
- 6) 김이은 · 조규화.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0, No.5, 1996. pp.801-816
- 7) 손미희.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 현상과 패션. 복식 46호. 1999. pp.49-66
- 8)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Fairchild Publications NEW YORK. 1997. p.271
- 9) Franklin, C. W.. The changing definition of masculinity. Plenum press New York. 1984.
- 10) 이숙희. 20세기 남성패션에 미친 미국의 영향-1890년대부터 2차 대전까지-. 한국의류학회지. Vol.20, No.1, 1996. pp.87-97
- 11) 정홍숙. 서양복식사. 교문사. 1999. p.364
- 12) 이숙희. 앞의 글. pp.87-97
- 13) 정홍숙. 앞의 책. pp.364-380
- 14) Gilles Lipovetsky. 이득재 역.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1999
- 15) Maria Costantino. Men's Fashion-In the twentieth century-. Costume & Fashion press. 1997. pp.39-44

- 16) Gilles Lipovetsky, 앞의 책, p.170
- 17)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와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Vol.11, No.2, 1997, pp.69-89
- 18) 19세기 나타난 고전적 댄디이즘처럼 스스로를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리감의 증가이다. 브뤼셀의 절제되고 수수한 의복, 넥타이나 장갑을 고를 때 이루어지는 세련미와 분위기에 대한 상류생활적인 탐구는 끝났으며 극도의 한계 상황, 이국성과 민족, 성 차의 소멸을 통해 가능하다. 네오댄디들은 스스로 자유방임으로 활동하고 추함과 혐오감을 과장하거나 인종적인 자기주장을 과장하기도 한다.
- 19) Gilles Lipovetsky, 앞의 책, p.175
-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마치 성 대상처럼 다루어서 성적쾌감을 품고 이를 바라보며 어루만지며 애무하여 마침내는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하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말이다.
- 21) 김이은·조규화,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0, No.5, 1999, pp.801-816
- 22) 서유리·조규화,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19, No.2, 1995, p.278-286
- 23) Alain Laurent,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도서출판 한길사, 2001, pp.146-153
- 24)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8, p.183
- 25)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Ⅱ)-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1998, pp.369-392
- 26) Richard Marthin·Harold Koda, 이선재 역, 인프라 의상, 경춘사, 1996, p.94.
- 27) 김민자, 앞의 글, p.391
- 28) Gilles Lipovetsky, 앞의 책, p.196.
- 29) Maggie Hum, 심정순·엄경숙 역, 페미니즘 이론사 전, 서울 도서출판 삼신각, 1995, p.316
- 30) 김민자, 앞의 글, p.391
- 31) 정현숙·정홍숙,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호, 1997, pp.231-252
- 32) 정홍숙, 앞의 책, p.393
- 33) 정삼호,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1998, p.176
- 34) 나체희, New wave fashion,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pp.95-96: 채수진·김혜연,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호, 1999, pp.203-224 재인용
- 35) 전혜정,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 연구논총, 1994, p.495: 손미희,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 현상과 패션, 복식 46호, 1999, p.53 재인용
- 36) Pierre Bourdieu, 김용숙, 주경미 역, La domination masculine, 東文選, 2000, p.130
- 37) <http://memgers.tripod.lycos.co.kr>
- 38) Maria Costantino, 앞의 책, pp.6-8
- 39) Maria Costantino, 그림, p.8
- 40) Thomas Kühne 외 지음, 조경식·박은주 역, 남성의 역사, 출출판사, 2001
- 41) 이민선,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3, No.6, 1999, pp.776-787
- 42) 채금석, 현대 남성수트의 변천과 미학적 특성, 복식 30호, 1996, pp.239-259
- 43) 이숙희, 남성패션의 변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189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한국의류학회지, Vol.19, No.3, 1995, pp.397-415
- 44) Maria Costantino, 그림, p.69
- 45) Maria Costantino, 앞의 책, p.24
- 46) Maria Costantino, 그림, p.43
- 47) Thomas Kühne 외 지음, 앞의 책, pp.293-304
- 48) Patricia Baker, Fashions of a decade : The 1950s, Facts on file, 1995, p.57
- 49) 이토 키미오, 정체기 역, 남성학 입문, 교육과학사, 1997, p.15
- 50) Maria Costantino, 그림, p.119
- 51) Vicky Carnegy, Fashion of Decade: The 1960's, New York: Facts on File, 1990, p.57
- 52) 김이은·조규화, 앞의 글, p.801-816
- 53) Jean-paul Gaultier, Men's Collections '92 s/s Vol.11, p.91
- 54) Comme Des Garçons, Men's Collections '92 s/s Vol.11, p.78
- 55) Maria Costantino, 앞의 글 p.138.
- 56) Maria Costantino, 그림 p.149
- 57) 채금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시대별 대표적 디자이너와 그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 44호, 1999, pp.37-56
- 58) Jean-paul Gaultier, '98 s/s Menswear Collection, firstview.com.
- 59) Lee Crystal, Genderless wave in Menswear Bazaar February-March, 1998
- 60) Maria Costantino, 앞의 책, p.149